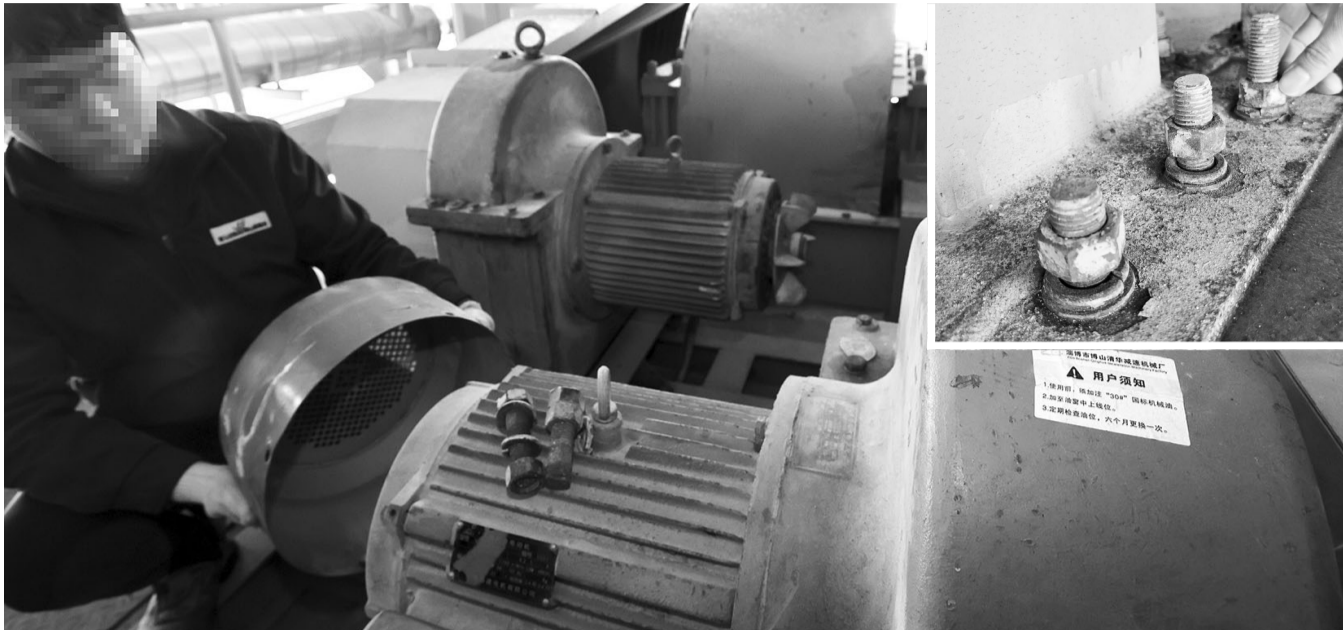


해남 광산, 부실투성이 장비 납품에 피해 '눈덩이'

5억원대 분쇄설비 시운전부터 '엉망' 진동기준 4배 초과·각종 부품 파손 계약 어기고 중국산·노후 모터 사용 광석 품질 저하로 일본 수출도 좌절 피해 구제 소송·손해배상 소송 제기 업체 인수한 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



해남 옥 광석 채굴기업 관계자가 부실시공으로 가동이 중단된 분쇄설비인 롤크라사의 모터 덮개를 들어보고 있다. (우측 상단 작은 사진) 심한 진동으로 고정 너트가 풀려 있다. 김양배 기자

해남의 옥 광석 채굴기업이 수 억원대의 분쇄 설비 제작을 의뢰했다가 업체의 심각한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의무 소홀로 수개월째 조업도 못한 채 수출까지 무산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시공 과정에서 국산 부품 사용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다. 분쇄 설비 제작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하도급까지 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는 부실시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흡수 합병됐고, 기업은 코스닥 상장 절차까지 밟고 있어 피해 업체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해남 옥광산 업체인 A산업은 지난해 경남에 있는 B업체와 계약금 5억7750만 원에 '해남 광업소 2공장 분쇄설비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024년 1월31일부터 5월30일까지다. 분쇄설비는 10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온 일본 기업 등에 10mm 이하의 분쇄 광석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쇄설비 도입 후 시운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산업 측은 1차 분쇄된 광석을 10mm 이하로 파쇄해 주는 롤크라사의 심한 진동, 롤크라사를 받쳐주는 6개의 기

둥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십톤의 철골 설비가 상하좌우로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 진동은 결국 롤크라사 일부 기계장치의 커버, 고정 볼트·너트의 70% 이상이 풀리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모터 등 각종 기기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는 게 A산업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진행된 시운전은 각종 하자 발생과 보수가 반복되다 결국 12월 2일 안전사고 위험성이 우려돼 중단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해남 광업소 광산에 자리한 문제의 분쇄시설은 가동되지 않았고, 피해업체 측이 설명한 롤크라사의 심한 진동에 설비를 받치고 있던 기둥을 콘크

리트 바닥과 고정하는 너트가 반쯤 풀려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진동으로 빠진 너트와 파손된 볼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A산업측은 진동이 얼마나 심한지 외부업체에 의뢰한 결과, 국제 기준(2.8m/s)을 4배 넘는 11.6m/s라는 측정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측정도 분쇄할 광석을 넣지 않은 '무부하시 측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산업 관계자는 "강한 진동으로 인해 여러차례 수리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면서 "롤크라사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보강하면 된다는 땀질식 처방만 내내

결국 하자 수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B업체가 시공 당시 국산부품 대신 중국산 모터를 사용했고, 분쇄설비 경험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A산업 측은 "시운전 당시 롤크라사를 움직이는 모터를 확인한 결과 중국산이어서 깜짝 놀랐다. 계약 당시 모터를 국산으로 쓰기로 했다고 항의하자 시운전이라 중국산을 썼다는 답변이었다"며 "후추 교체된 모터 역시 제조연도가 22년이나 지난 부품을 사용했고, 심지어 롤크라사 설비 경험이 없는 업체에 설비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도 좌절됐다. 롤크라사의 심

한 진동으로 10mm 이하로 광석을 균일하게 생산하지 못하면서 일본 기업과의 수출 계약도 무산됐다. A산업 측은 "10mm 이하로 분쇄된 광석은 철광업체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생산이 불가능해 일본 수출을 포기했다. 이들은 100년 가까이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이다. 수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회사 신뢰마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9개월째 가동도 못해본 설비 때문에 A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B업체는 지난해 5월 C기업에 인수합병됐다. C기업은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A산업 측은 "시운전을 통해 해당 업체의 명백한 부실시공임이 드러났다. 9개월 넘게 확실한 하자 보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더이상 방지할 수 없어 손해배상과 철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지난주 인수한 C기업과 만나 협의에 나섰고, 업체 측에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누가 수용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C기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다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C기업은 로봇·물류자동화 기업으로 현재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수 기자

"관광 자원 활용한 광주 동구만의 브랜드 만들어야"

동구 관광 활성화 위한 비전포럼

광주 동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선 동구만의 관광 브랜드와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동구의회는 24일 오후 2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동구관광산업의 현안과제

를 진단하고 다각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장, 정은성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문창현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석현 광주관광협회장, 김지희 광주관광공사 지역관광팀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정은성 교수는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해외 관광객 유입 감소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 교수는 "무안공항이 광주·전남권의 핵심 국제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선 감축으로 해외 개별 자유여행객 및 단체 관광객이 줄어 동구 관광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시의 외지인 방문자 수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할 때, 동구는 1%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부분에서는

정체성이 불분명해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동구에서 진행되는 총장축제,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아시아문화주간 등 축제·이벤트 중심 관광이 일회성에 그쳐 체류시간이 짧고 지속적인 방문 유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구의 평균 체류시간은 789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310분 짧았고, 지난해에 비해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등 다양한 관

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브랜드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럼 좌장을 맡은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장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지역 관광업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시기에 적은 사업비라도 관광업계에 힘이 됐던 '힐링투어사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